

『璿源系譜紀略』刊布奉安의 順序 定型考

- 肅宗朝와 景宗朝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Process orders of *Sonwon-kyebo-kiryak* in
Publishing, Distribution, and Enshrinement

- During Sukjong and Kyungjong's Period -

윤 인 현 (Yoon, In-Hyun)*

◁ 목 차 ▷

- | | |
|------------------------------|------------------|
| 1. 緒 言 | 3. 간포奉安의 順序 |
| 2. 肅宗,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刊行 推移 | 4. 結 言
<참고문헌> |

< 초 목 >

본고는 肅宗, 景宗朝에 간행된 8種의 『璿源系譜紀略』刊布奉安의 順序를 살펴 그 定型을 도출한 것이다. 『璿源系譜紀略』은 肅宗 5년(1679)에 始刊되어 昭和 7년(1932) 終刊까지 약 250년 동안 114회 간행되었는데, 肅宗과 景宗朝 약 50년간의 草創期에 다양한 사정에서 試行錯誤를 겪으며 8種이 간행되었다.

이 8種의 刊布奉安 過程의 順序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1) 建議와 許諾, 2) 校正廳 設廳, 3) 責任者 選拔, 4) 應行節目 마련, 5) 單子收集, 6) 作業分房, 7) 業務分掌, 8) 施設 補修와 警備, 9) 單子考校, 10) 初草, 11) 中草 및 校正, 12) 御覽正書, 13) 御覽正書本 粧纈, 14) 御覽正書本 進上, 15) 付板正書, 16) 板刻, 17) 印出, 18) 粧纈, 19) 完成本 進上 進獻, 20) 進箋, 21) 洗草, 22) 撤局, 23) 褒賞, 24) 頒賜, 25) 奉安 등의 順序이다.

要語: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 목판인쇄술, 왕족, 족보

* 대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oonih@daejin.ac.kr)

접수일: 2013년 8월 23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standard process orders of *Sonwon-kyebo-kiryak* several editions in publishing, distribution, and enshrinement during Sukjong and Kyungjong's period. *Sonwon-kyebo-kiryak* had been published 114 times during about 250 years from 1679 till 1932. Some of them, 8 editions had been published during Sukjong and Kyungjong's period of beginning time about 50years.

Analyzing and synthesizing each process orders of publishing, distribution and enshrinement of these 8 editions, the imaginary standard process orders was turned out like these, 1) making a recommendation of publishing to the king and the king's approval, 2) establishing the Kyojeongcheong, 3) electing chief executive, 4) making of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5) gathering genealogical records, 6) separating of workroom, 7) dividing of work, 8) repairing equipment and guarding, 9) checking genealogical records, 10) the first draft and review, 11) the second draft and review, and proofreading, 12) precise transcription for the king, 13) binding and decorating of precise transcription books for the king, 14) presenting precise transcription books to the king, 15) making the final transcription to be attached to the wood blocks, 16) engraving on the wood blocks, 17) the printing, 18) binding, and decorating of the books, 19) dedicating finished books to the king and crown prince and its ceremony, 20) dedicating the ceremony writing, 21) cleaning used papers, 22) the abolition of Kyojeongcheong, 23) awarding a prize, 24) the king's distribution of the books to the royal families and high officials, 25) enshrinement, in sequence.

Key words: *Sonwon-kyebo-kiryak*, *Sonwon-boryak*, wood block printing, royal family, genealogy

1. 緒言

「璿源系譜紀略」은 조선왕조의 기본 족보로서 肅宗 5년(1679)에 처음 간행하여 1932년까지 113회 重校補刊하면서 114회 간행된 목판본이다. 이렇게 많은 횟수로 간행하면서 그 때마다 王族과 臣僚들에게 頒賜하고 史庫의 璿源閣에 奉安하였다. 먼저 간행을 위하여 原稿本을 작성하고 校正하고 板刻하고, 이에 따른 각종 의식을 치르고 配布하고 奉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미 草創期에 몇 회를 수행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일정한 순서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始刊本부터 終刊本까지 약 250년간에, 草創期 약 50년간을 차지하는 肅宗과 景宗年間만 해도 모두 8차의 간행이 있었고, 간행 때마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王族의 地位 變化 및 生卒, 誤謬의 발생, 罪死와 復爵 등의 修正으로 그 간행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기본적인 刊行 配布 奉安의 順序는 있었을 것이다.

肅宗5年本은 始刊本, 肅宗7年本은 始刊本の 修正完成本, 肅宗26年本은 肅宗7年本の 續冊 刊行本, 肅宗28年本은 肅宗26年本の 修正本, 肅宗39年本은 肅宗 卽位 40주년 紀念本, 肅宗45年本은 肅宗의 耆老所 入所 紀念本, 肅宗46年本은 肅宗45年本の 改張修訂本이다. 특히 景宗3年本은 왕의 교체로 인하여 간행된 판본이다.

이에 肅宗5年本부터 景宗3年本까지 약 45년간에 간행된 이들 8종의 판본에 관련된 儀軌와 實錄 등을 살펴 「璿源系譜紀略」의 刊行, 配布, 奉安 등의 定型의 人 順序를 도출하여 英祖 이후에 간행된 판본들의 刊布 奉安 과정 연구에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2. 肅宗,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刊行 推移

2.1 「璿源系譜紀略」의 始刊本

朗原君 侁이 필사본으로 「璿源譜略」을 작성하여 肅宗에게 올리고 목판으로 간행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肅宗이 이를 치하한 후 간행하여 배포하라고 한 이후 잠시 일부 庶派 宗臣들의 반대¹⁾가 있었으나 최초로 肅宗 5년에 간행한 2卷1冊으로 張數 100張의 「璿源系譜紀略」이 그 始刊本이다.

이 始刊本の 간행에 있어서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소략하다. 朗原君 侁이 제시한 원고본은 여러 자료를 개인적으로 섭렵하여 작성하였기에 列聖의 徽號, 諡號, 昇遐殿名, 王后의 誕降年月日과 昇遐殿名 및 年月日, 恭靖大王 登第²⁾年月, 昭憲王后 冊封年月日, 仁城大君의 名字 등에 誤謬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香室의 기록, 宗廟의 位版, 璿源御牒 등을 대조하고 實錄考出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처음 간행하면서 그 起例³⁾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된 고민이 있었다.⁴⁾

다만, 이 始刊本の 간행 절차에 관련하여 대략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반 經籍의 인쇄는 대개 校書館에서 하는데, 작업 장소를 校書館에 두면 일을 주관하는 宗室人들이 御諱와 御號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이 「璿源系譜紀略」이 종실에 직접 관련된 書籍이기 때문에 宗簿寺가 간행을 담당하게 하였다.⁵⁾

둘째, 木材는 校書館에서 제공하고, 그 밖의 물자와 인력은 戶曹에서 제공하게 하였다.⁶⁾

1)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6-7 (己未 八月) 十五日條.

2) 科擧에 及第.

3) 체제나 범례를 세움. 또는 그 규정을 말함.(「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0>에 의거).

4) 윤인현, “「璿源系譜紀略」改刊過程과 始刊本 分析,”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370, 375 참조.

5)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4 (己未) 四月初八日條.

6)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4 (己未)

셋째, 刻手는 外方刻手를 差出한다. 인력이 부족하면 먼저 校書館의 刻手를 부르는데, 당시 校書館에서는 御製를 간행하고 있어서 成均館 刻手의 도움을 받았다.⁷⁾

넷째, 「璿源系譜紀略」을 완성하여 임금께 進獻을 하는데, 일반적인 책은 承政院에서 올리는 것이 常例이나, 宗簿寺 提調로 하여금 仁政殿에서 儀仗配陣시키고, 承旨가 承傳色을 시켜 바쳐 올리게 하여 實錄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였다.⁸⁾

다섯째, 肅宗 5年 11월 1일에 御覽用 몇 건과 頒賜用 몇 건을 進獻하되 宗簿寺 提調인 福昌君 楨과 李元楨, 主簿 尹善得, 直長 鄭碩耆가 배진했다.⁹⁾

여섯째, 頒賜는 왕족과 관료들에게 하되, 頒賜방법은 옥새를 찍어 承政院에 두고 承旨가 내어 주는데, 頒賜 받는 자가 직접 와서 수령하도록 하였다.¹⁰⁾

일곱째, 奉安은 宗簿寺의 提調가 江都和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의 璿源錄 保管處에 보관하기로 하였다.¹¹⁾

요컨대 2卷1册, 100張의 「璿源系譜紀略」 始刊本은 그 관련기록이 다소 소략하나, 校正廳을 설치하지 않고 宗簿寺에서 간행을 담당하였으며, 木材는 校書館에서, 그 밖의 물자와 인력은 戶曹에서, 刻手는 外方刻手와 成均館 刻手를 불렀고, 進獻儀式은 宗簿寺 관료들이 배진하여 實錄과 같은 수준으로 치른 후, 왕족과 관료에게 頒賜하고 史庫의 璿源閣에 奉安하는 최초의 선례를 남기고자 하였음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판본은 奉安되지 못하였다.

四月初八日條.

- 7)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4 (己未) 六月二十二日條.
- 8)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8 (己未) 十月二十日條.
- 9)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9 (己未) 十一月初一日, 初三日條.
- 10)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9 (己未) 十一月初二日條.
- 11)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3 (己未) 十一月初二日條.

2.2 「璿源系譜紀略」肅宗7年本

肅宗 5年 11월 1일에 「璿源系譜紀略」始刊本이 완성되어 進獻하였다. 그 후 일부 頒賜되었으나 誤謬가 많다고 지적되어 수령자가 이를 수정한 후 籤紙를 붙여서 承政院으로 환수하도록 하였다.¹²⁾

誤謬의 내용은 각 陵의 향배에 대해 禮曹와 觀象監의 기록이 다른 점, 열성의 徽號와 諡號가 香室의 祝板과 實錄의 기록이 다른 점, 賜死되거나 罪廢된 자의 기록에 대한 是非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¹³⁾ 李玄紀를 보내어 實錄를 再考出하였다.¹⁴⁾

이 또한 考出의 내용이 부실하여 12월에 李敏敘, 南致薰을,¹⁵⁾ 그 이듬해인 肅宗 7년 6월에 다시 趙師錫과 李畬를 보냈다.¹⁶⁾ 누차의 실록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최초 完成本 즉 肅宗7年本의 정확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始刊本の 張數는 총 100張이고 肅宗7年本은 총 114張인데, 最終의 金錫曹 跋文 3張 중 2張만 始刊本の 것을 그대로 사용했고 그 나머지 1張은 새로 板刻하였다.¹⁷⁾ 즉 112張을 새로 板刻한 것인데, 이는 始刊本보다 시간과 인력과 물자가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儀軌¹⁸⁾上에는 간행에 따

12)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11 (己未) 十一月初五日條, 張12 (庚申 正月) 二十八日條.

13)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13 (庚申 正月) 二十八日條.

14)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13 (庚申) 閏八月十五日條.

15)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14 (庚申) 十二月 日條.

16)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15 (庚申) 六月 日條.

17) 이 두 가지 판본이 모두 존존하고 있어 張마다 대조한 결과, 張次로 매긴 千字文의 字體뿐만 아니라 版心의 魚尾 모양도 다르며, 계보의 특성상 약간의 수정이 있어도 기록 내용이 위치를 변경하므로, 판목의 異同은 확연히 드러난다.

18) 表紙書名이 「璿源譜略儀軌」로 되어있고 卷首題가 「璿源譜略改刊儀軌」(M35-542) (2-3837)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藏書閣 소장본이 있고, 서울대학교 奎章閣에는 叅13390, 叅14002, 叅14003, 叅14004가 있다. 이들은 始刊本과 肅宗7年本에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른 인력과 물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御覽用 10건, 頒賜用 242건을 印出하여 進獻儀式을 치르고, 「璿源系譜紀略」의 간행을 반대했다가 頒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寧平正 泗와 아울러 宣祖의 外孫까지 頒賜 범위를 넓혀 頒賜하였다.¹⁹⁾

요컨대 2卷1冊, 114張의 「璿源系譜紀略」 肅宗7年本은 頒賜된 始刊本을 수령한 자들로부터 수정하여 환수하고, 이를 참고하면서 실록을 누차 재고출하여 전혀 새로운 판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간행과정에 관련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肅宗7年本은 최초의 完成本으로 江都,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에 奉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頒賜本 修正 還收, 實錄 考出, 印出, 進獻, 頒賜, 奉安의 과정을 밟았다.

2.3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은 東善都正²⁰⁾과 益寧守²¹⁾가 肅宗7年本 「璿源系譜紀略」의 간행 이후 魯山君, 魯山大君을 거쳐 端宗으로의 追封, 왕자 昀²²⁾의 탄강,²³⁾ 왕세자 책봉²⁴⁾과 그 빈의 책봉,²⁵⁾ 莊烈王后²⁶⁾와 明聖王后²⁷⁾의 加上徽號

19)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16-17 (辛酉) 七月十八日條.

20) 李柄으로 仁祖의 아우 綾原大君의 曾孫이며, 肅宗은 仁祖의 曾孫으로 東善都正과 肅宗은 8촌 관계이다. 綾原大君은 宣祖의 제3남이며 仁祖의 兄인 義安君 아래로 出繼하여 계보상으로는 10촌간이다.

21) 宣祖의 제12남 仁興君의 曾孫으로 「璿源系譜紀略」의 始編者인 朗原君의 孫子로서 肅宗과는 9촌.

22) 일반적으로 ‘장희빈’이라 일컫는 玉山府大賓 張氏의 所生.

23) 戊辰(肅宗 14년) 十二月二十八日丁卯 誕降.

24) 庚午(肅宗 16년) 冊封王世子 乙亥(肅宗 21년) 入學行冠禮.

25) 丙子(肅宗 22년) 冊封王世子嬪行嘉禮.

26) 仁祖의 繼妃, 趙昌遠의 女息. 肅宗 12년에 ‘康仁’이라는 徽號를 加上함. 필자는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1. 12), 410에서 ‘莊烈王后에게 加上徽號한 것’을 ‘莊烈이라는 휘호를 올렸다’고 기술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康仁’이라는 徽號를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27) 顯宗의 妃. 金佑明의 女息. 肅宗7年本에는 ‘顯烈王大妃殿下金氏’, 肅宗26年本에는 ‘癸亥

등을 追載하는 것으로 『璿源系譜紀略』의 續冊을 필사하여 肅宗에게 바친²⁸⁾ 계기로 간행을 시작하여 약 7개월간의 작업으로 그 해 8월 4일에 완성한 판본이다.

宗簿寺에서 續冊을 교정하면서, 향렬이 높은 宗班 2인을 校正堂上으로 발탁해 줄 것을 요청하고,²⁹⁾ 校正廳을 설치하고 提調 4인, 都廳 1인, 校正官 5인, 郎廳 2인, 書寫忠義 3인, 別工作 監役官 1인 등의 행정직 및 校正, 書寫, 監役, 刻手, 磨板軍, 木手, 助役, 小木匠, 次知唱准, 使喚軍, 蹄刻匠, 等牌, 火丁, 校正唱准 등의 기능직 및 잡무 담당이 투입되어 처음으로 2冊의 형태로 간행하였다. 3卷2冊, 190張의 행태로 進上進獻用 50건, 頒賜用 242건, 奉安用 5건, 도합 297건을 간행하였다.

그 간행과정은 대략 校正堂上의 選拔, 校正廳의 設廳, 應行節目 마련과 單子 收集, 作業分房과 業務分掌, 施設補修와 警備, 初草, 付板正書, 御覽正書와 進上, 校正, 板刻, 印出, 粧潢, 進上和 進箋, 撤局, 褒賞 등의 順序로 진행되었다.³⁰⁾

2.4 「璿源系譜紀略」 肅宗28年本

이 板本은 刑曹判書 金鎮龜가 肅宗26年本에 曾祖父 吏曹參判 金槃에 관련된 기록에 誤謬³¹⁾가 있다고 지적하여 상소한 일을 계기로 肅宗26年本의 子孫錄과 跋文을 修訂하고,³²⁾ 肅宗 繼妃 仁顯王后³³⁾의 昇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罪死

(肅宗 9年) 十二月五日 昇遐' 기록과 함께 '顯烈貞獻文德明聖王后'로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1. 12), 410에서 '明聖王后에게 加上徽號한 것'을 '明聖이라는 휘호를 올렸다고 기술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顯烈王大妃殿下金氏의 승하 이후 '貞獻文德明聖王后'라는 徽號를 올려 '顯烈貞獻文德明聖王后'로 기재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28)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40<M35-542>) 張1. 庚辰正月 初五日條.

29)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40<M35-542>) 張2 左. 行8-12. 庚辰 正月 十日六條.

30)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22輯(2001. 12), 435-436.

31) 宣祖의 第2翁主人 貞惠翁主의 아들이 尹墀인데, 그의 사위가 金益兼이다. 金益兼의 註에 그 父親이 金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金槃의 관작이 肅宗26年本에 '父參判贈領議政光寧府院君槃'이라 하였는데, 肅宗28年本에는 '父參判贈領議政槃'으로 수정하였다.

者의 官爵을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오류의 지적은 肅宗26年本이 완성된 지 20날도 채 지나기 전이었다. 이에 頒賜를 받은 신하는 誤謬處에 付籤하여 환수하게 했는데 ‘御牒’에는 2처, 子孫錄에는 79처가 지적되었으나, 자손록 중에 肅宗26年本 간행 이후에 발생한 미미한 부분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반드시 고쳐야 할 곳이 62처였다. 이들을 수정한 결과, 肅宗26年本の 總張數 190張이므로 양면으로 새긴 목판은 95판인데, 肅宗26年本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68張分, 補空한 것이 74張分이었다.³⁴⁾

金鎮龜가 오류를 지적한 시점이 肅宗 26年 8월 19일이고 肅宗 28年 閏6월 2일에 進上하였으니 肅宗28年本을 완성하는 데는 약 22개월 보름이 소요되었다. 이 두 판본은 3卷2冊, 190張의 형태를 갖추고, 肅宗26年本을 회수하여 수정 간행했기 때문에 肅宗28年本の 간행수량도 進上進獻用 50건, 頒賜用 242건, 奉安用 5건 포함 297건을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肅宗26年本 제1책이 2건, 제2책이 1건이 전존하고 있어 환수에 누락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그 수정 간행과정은 校正廳 設廳하지 않고, 捧單節目과 應行節目 마련, 初抄, 中抄, 付板正書, 板刻, 印出, 改張, 進上, 洗草 등의 順序로 진행되었다.

2.5 「璿源系譜紀略」肅宗39年本

이 板本은 그 간행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儀軌’가 없다. 그 이유는 전체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정은 이러하다.

肅宗 39年 3월에 洛昌君과 韓山副正이 肅宗의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존호를 올리는 상소를 계기로 延祊君의 책임 하에 「璿源系譜紀略」을 그해 윤5월에 속간

32) 吳道一의 발문은 4張으로 되어 있는데 第1張 左葉 第5, 6行 “命 提調東平君臣杭 提調吳道一 及他宗臣二員”을 “命 本寺提調 吳道一 及宗臣晉平君澤 林原君杓”로 수정하고, 제3장 右葉 第5행 “端宗大王 追陞大位”를 “端宗大王 復正位號”로, 그리고 제3장 左葉 第7행 “… 使神理無憾 國統復正”을 “… 使神理無憾 人心胥悅”로 수정하였다.

33) 閔維重의 女息. 辛巳(肅宗27年) 八月四日己巳 昇遐.

34) 윤인현, “「璿源系譜紀略」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233 참조.

하게 된 것이다. 3권2책, 198張의 형태로 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肅宗28年本の木板을 거의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총 198張 중 11張을 제외한 187張은 舊板³⁵⁾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 3張은 肅宗7年本³⁶⁾이고 나머지 184張은 肅宗28年本이다. 新板³⁷⁾으로 찍은 것은 5張에 불과하고, 구판의 내용과 신판의 내용이 합쳐진 改版³⁸⁾이 3張, 補空³⁹⁾을 하여 활용한 것이 1張, 구판과 내용이 동일한 再刻板⁴⁰⁾이 2張이다. 즉 자손록은 수정하지 않고 御牒만 수정한 것이다.⁴¹⁾

요컨대 肅宗39年本은 肅宗28年本을 환수하여 改張增補하였는데, 新板 5면과 改版 3면, 再刻板 2면, 총 10면을 새로운 목판 5매에 板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補空 1면의 작업이 있었다. 그 간행과정은 肅宗28年本 환수, 御牒변동 사항 정리, 跋文作成, 肅宗7年本 목판 탐색, 목판 5매 10면 板刻, 1면 補空, 印出, 肅宗28年本 解冊, 再粧橫 등의 順序로 추정된다.

2.6 「璿源系譜紀略」 肅宗45年本과 肅宗46年本

「璿源系譜紀略」 肅宗45年本은 肅宗이 耆老所에 든 사실을 追載하기 위하여, 景宗이 世子의 신분으로 노론의 세력 속에서 대리청정을 하던 때에 간행된 것으로, 肅宗 45年 4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5개월 남짓 걸쳐 간행하였는데, 肅宗 26년, 28년, 39年本이 2冊本の 형태인 것에 반해 처음으로 4冊本 즉 5卷4冊, 336張의 형태로 御覽用 15건 徽覽用 10건, 頒賜用 121건, 총 146件 584冊을 완성하였다.

35) 肅宗7年本과 肅宗28年本을 그대로 肅宗39年本에 사용한 목판임.

36) 「璿源系譜紀略」 肅宗7年本の 金錫胄 跋文 3張.

37) 肅宗28年本에는 없던 내용을 새로이 板刻한 목판.

38) 肅宗28年本の 기존 내용에 肅宗39年本の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이 板刻한 목판.

39) 肅宗28年本에 사용하였던 목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분의 문자를 파내고 필요한 만큼의 나무를 부착한 후 새로운 내용을 새긴 목판.

40) 肅宗39年本에 수록할 내용이 肅宗28年本の 내용과 꼭 같지만, 肅宗28年本이 파손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板刻한 목판.

4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39年本考,” 『書誌學研究』 第33輯(2006. 6), 273. 차제에 “改版이 4면, … 동일한 再刻板이 1면이다.”를 “改版이 3면, … 동일한 再刻板이 2면이다.”로 오류를 수정함.

頒賜用的 소요수량이 부족하여 79件 316冊을 追加 印出함으로써 며칠 더 작업하여, 약 6개월이 걸려 총 201件 804冊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간행되어 進上의 儀式까지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처가 지적되어, 이 肅宗45年本을 그대로 모두 肅宗46年本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延齡君이 10월 2일에 타계하여 이 사실을 포함하여 改張修正하였기 때문에 肅宗45年本은 기록상에는 보이는 판본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본이다.

「璿源系譜紀略」 肅宗45年本과 肅宗46年本을 목관으로 간행한 과정은 應行節目 마련 및 單子收集, 校正廳 設置, 作業分房과 業務分掌, 施設補修, 單子考校, 初草, 中草, 付板正書, 御覽正書, 進上進獻, 板刻, 舊板子 補充, 印出, 粧纈, 進上, 褒賞, 追加印出, 洗草, 徹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7 「璿源系譜紀略」 景宗3年本

이 판본은 景宗이 즉위한 지 약 2년 동안에 生母 張禧嬪의 名號와 爵號 회복, 그리고 張禧嬪에 관련된 李頤命의 肅宗 墓誌文, 延仍君의 世弟冊封과 代理聽政 등의 논쟁으로 辛壬黨禍를 겪은 후 소론의 정권하에서⁴²⁾ 宗簿寺의 建議로 간행하게 되었다.

景宗이 世子로서 代理聽政하던 시기에 간행된 肅宗46年本과는 2, 3년의 時差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朝廷에 일이 많아 校正廳을 설치하지 않고 간행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譜法에 능통한 校正官 2인과 글씨를 잘 쓰는 寫字官 1인을 선발하고, 校正廳 설치의 경우처럼 宗簿寺의 正, 主簿, 直長을 公會參席과 祭官任命을 면제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宗簿寺 堂郎의 감독하에 宗簿寺에서 처음에 御牒만을 수정하고자 하였다.⁴³⁾

御牒 관련 자료 收集, 初草, 中草, 付板正書, 板刻, 補空, 進上 進獻件의 印出,

42)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7. 11), 338-341 참조.

43)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 (藏2-3847 : M35-542~543) 張1 壬寅六月十九日.

粧纒, 頒賜件 印出, 進上進獻 儀式 준비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발문 작성이 지연되고 급기야 子孫錄도 수정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⁴⁴⁾ 校正廳을 설치하고 子孫錄 관련 자료 收集, 御覽對備, 印出, 粧纒, 進上進獻儀式, 洗草, 撤局, 褒賞, 頒賜, 改張進上, 奉安 등의 順序로 진행되었다.⁴⁵⁾

3. 간포奉安의 順序

3.1 8종 板本の 刊布奉安 順序

肅宗5年本은 始刊本으로 처음 간행하면서 체제와 범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수록내용의 정확성에 고민을 하면서, 校正廳을 설치하지 않고 宗簿寺가 간행을 담당하고, 목재는 교서관, 그 밖의 물자와 인력은 戶曹, 刻手는 宗簿寺가 外方 刻手 동원, 실록과 같은 수준의 進獻儀式과 奉安, 왕족과 관료에 頒賜한다는 대략의 틀을 잡았다.

肅宗7年本은 頒賜된 始刊本을 수정하여 환수하고, 철저한 實錄 考出을 통하여 印出, 進獻, 頒賜, 奉安의 과정을 밟았다.

肅宗26年本은 약 20년 前 板本인 肅宗7年本을 修補하면서, 校正堂上의 選拔, 校正廳의 設廳, 應行節目 마련과 單子收集, 作業分房과 業務分掌, 施設補修와 警備, 初草, 付板正書, 御覽正書와 進上, 校正, 板刻, 印出, 粧纒, 進上和 進箋, 撤局, 褒賞 등의 順序로 진행되었다.

肅宗28年本은 肅宗26年本의 오류 수정 판본으로 校正廳 設廳하지 않고, 捧單 節目과 應行節目 마련, 初草, 中草, 付板正書, 板刻, 印出, 改粧, 進上, 洗草 등의 順序로 진행되었다.

44)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7 : M35-542~543) 張3 癸卯七月二十八日.

45)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景宗3年本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 163.

肅宗39年本은 肅宗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肅宗28年本을 환수하여 改張 增補하였는데, 新板 5면과 改板 3면, 再刻板 2면, 補空 1면의 작업으로, 肅宗28年本 환수, 御牒변동 사항 정리, 跋文作成, 肅宗7年本 목판 탐색, 板刻, 補空, 印出, 肅宗28年本 解冊, 再粧縑 등의 順序로 추정된다.

肅宗45年本과 肅宗46年本은 肅宗의 耆老所 入所 기념으로 간행하였는데, 應行 節目 마련 및 單子收集, 校正廳 設置, 作業分房과 業務分掌, 施設補修, 單子考校, 初草, 中草, 付板正書, 御覽正書, 進上進獻, 板刻, 舊板子 補充, 印出, 粧縑, 進上, 褒賞, 追加印出, 洗草, 徹局 등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景宗3年本은 宗簿寺의 建議로 왕의 교체에 따른 변동에 대한 수정으로 御牒만 수정하려고 하였다가 子孫錄까지 수정하게 된 판본으로 御牒 수정 시에는 다른 御牒 관련 資料 收集, 初草, 中草, 付板正書, 板刻, 補空, 進上 進獻件의 印出, 粧縑, 頒賜件 印出, 進上進獻 儀式 準備 이후 중단되고, 跋文 作成 遲延과 함께 子孫錄을 수정하게 되어 校正廳을 설치하고 子孫錄 관련 資料 收集, 御覽 對備, 印出, 粧縑, 進上進獻儀式, 洗草, 撤局, 褒賞, 頒賜, 改張進上, 奉安 등의 順序로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하여, 대체로 그 進行順序가 표준에 가까운 肅宗26年本과 肅宗45, 46年本의 대략적인 순서를 기준으로 여타 판본의 각 진행 순서를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 圖表化하면 <표 1>과 같다.

<표 1> 肅宗, 景宗朝 「璿源系譜紀略」各 板本 刊布奉安 順序

5	7	26	28	39	45, 46	3A	3B
1. 原稿本 提出		1. 原稿本 提出					
		2. 原稿本 校正					
2. 起例論斷 宗班 選出							
	1. 前板本 選收			1. 前板本 選收			
		3. 校正堂上 選拔					
3. 宗簿寺		4. 校正廳 設廳	1. 宗簿寺		3. 校正廳 設廳		B1. 校正廳 設廳
			2. 捧單節目				

5	7	26	28	39	45, 46	3A	3B
4. 人力物資 動員 作業場所 指定		5. 應行節目	3. 應行節目		1. 應行節目		
5. 實錄考出	4. 實錄考出	6. 單子收集		2. 御牒變動 事項 整理	2. 單子收集	A1. 御牒資料 收集	B2. 子孫錄 資 料 收集
				3. 跋文作成			
		7. 作業分房			4. 作業分房		
		8. 業務分掌			5. 業務分掌		
		9. 施設補修와 警備			6. 施設補修		
					7. 單子考校		
		10. 初草	4. 初草		8. 初草	A2. 初草	
			5. 中草		9. 中草	A3. 中草	
		11. 付板正書	6. 付板正書		10. 付板正書	A4. 付板正書	
		12. 御覽正書			11. 御覽正書		B3. 御覽에 對備
		13. 御覽正書 進上			12. 進上進獻		
		14. 校正					
		15. 板刻	7. 板刻	5. 板刻	13. 板刻	A5. 板刻	
				6. 補空		A6. 補空	
				4. 既存 木板 探索	14. 舊板子 補充		
	3. 印出	16. 印出	8. 印出	7. 印出	15. 印出	A7. 進上進獻 件 印出 A9. 頒賜件 印出	B4. 印出
				8. 前板本 解冊			
		17. 粧績	9. 改粧	9. 再粧績	16. 粧績	A8. 粧績	B5. 粧績
6. 進獻	4. 進獻	18. 完成本 進上	10. 完成本 進上		17. 進上	A10. 進上進獻 準備	B6. 進上進獻 儀式
		19. 進箋					
		20. 撤局			21. 撤局		B8. 撤局
		21. 褒賞			18. 褒賞		B9. 褒賞
					19. 追加印出		
			11. 洗草		20. 洗草		B7. 洗草
7. 頒賜	5. 頒賜						B10. 頒賜
							B11. 改裝進上
	6. 奉安						B12. 奉安
						A11. 跋文作成	

* 최상단의 5, 7 등은 肅宗5年本, 肅宗7年本 등을 지칭하며, 45, 46은 肅宗45年本과 肅宗45年本을 지칭하고, 3A는 景宗3年本 간행과정에서 校正廳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한 내용이며, 3B는 景宗3年本 간행과정에서 校正廳을 設廳하고 다시 진행한 내용이다.

3.2 刊行 建議와 許諾

始刊本은 朗原君이 간행을 建議하여 肅宗이 이를 許諾하였고, 그 간행 결과 兵曹判書 金錫胄가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肅宗7年本으로 改刊하였다. 肅宗26年本은 東善都正과 益寧守가 肅宗7年本 이후 발생한 王族의 身分과 身上의 變化를 추가하고자 續冊子를 肅宗에게 올림으로써 간행이 허락되었다가 刑曹判書 金鎭龜의 오류 지적으로 肅宗28年本으로 改刊되었다. 肅宗39年本은 肅宗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尊號를 올리는 것을 許諾함으로써 洛昌君과 韓山副正의 建議로 간행되었고, 肅宗45年本은 肅宗이 耆老所에 入所하는 일을 기념하여 宗簿寺에서 代理聽政하던 世子에게 건의하여 간행되었는데, 密豐君과 礪城君의 建議로 肅宗46年本으로 修正改張되었다. 景宗3年本은 辛壬黨禍 이후 宗簿寺의 建議로 景宗의 許諾을 얻어 宗簿寺에서 御牒만 수정하려 하였으나 子孫錄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다시 宗簿寺의 建議로 校正廳을 設廳하고 수정 간행할 것을 許諾하였다.

요컨대 宗親이나 宗簿寺에서 임금에게 때에 따라서는 代理聽政 世子에게 建議하여 간행의 許諾을 받았다.

3.3 간행의 시작과 校正廳 設廳 및 責任者 選拔

書籍을 木版本으로 간행하기 위해서는 그 원고본이 필요하다. 肅宗5年本의 경우는 南元균이 「璿源譜略」을 필사하여 왔기에 이에 香室 기록과 宗廟의 位版, 璿源御牒, 實錄 등을 통해 수정하여 이를 원고본으로 삼아, 처음 제작하기 때문에 그 起例를 정할 宗班을 選拔하였고, 肅宗7年本은 그 첫 업무가, 오류가 지적된 前板本인 肅宗5年本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前板本을 회수하여 작업을 시작할 사례는 肅宗39年本 간행에도 있었다. 이는 肅宗 즉위 40주년 紀念으로 肅宗28年本을 회수하여 ‘御牒’만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肅宗26年本은 東善都正 李炳 등이 肅宗7年本의 續冊子를 필사하여 제출한

것이 그 시발점인데, 먼저 校正堂上 2인을 選拔하여 宗簿寺에서 시작하였으나 力不足이어서 나중에 校正廳을 設廳한 바 있다.

이상은 특수한 예이고, 일반적으로는 『璿源系譜紀略』을 간행하기로 결정되면 宗簿寺에서 수행하되, 작업의 규모가 크면 校正廳을 設廳하고 작으면 設廳하지 않고 宗簿寺 내에서 진행하였다. 그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肅宗,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각 판본 간행규모와 設廳여부

판본	간행기간	設廳	권책수	장수
始刊本(숙5)	숙5 2/15 - 숙5 11/1(8.5개월)		상하1책	100張
肅宗7年本	숙5 11/5 - 숙7 9/7(1년 11개월) ⁴⁶⁾	◎	상하1책	114張
肅宗26年本	숙26 1/5 - 숙26 8/4(6개월)	◎	3권2책	190張
肅宗28年本	숙26 8/19 - 숙28 윤6/2(1년 9.5개월)		3권2책	190張
肅宗39年本	숙39 3/14 - 숙39 윤5/15(3개월)		3권2책	198張
肅宗45年本	숙45 4/4 - 숙45 9/10(5개월)	◎	5권4책	336張
肅宗46年本	숙45 10/10 - 숙46 3/26(5.5개월)		5권4책	336張
景宗3年本	경2 6/16 - 경3 10/20(1년 4개월)	◎	5권4책	340張

	간행건수				간행책수	소요지장	
	御覽用		頒賜用	奉安用			합계
	進上用	進獻用					
始刊本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肅宗7年本	10건		242건		252건	28,728張	
肅宗26年本	50건		242건	5건	297건	56,430張	
肅宗28年本	50건		242건	5건	297건	36,234張	
肅宗39年本	미상		미상	미상	미상	4,158張	
肅宗45年本	15건	10건	316건		341건	114,576張	
肅宗46年本	15건	10건	316건		341건	4,774張	
景宗3年本	15건	10건	200건	5건	230건	920책	

* 판본의 始刊本은 肅宗5年本이며, '숙5 2/15' 등은 '肅宗 5년 2월15일' 등을 뜻함.
 設廳: 간행처는 모두 宗簿寺인데 校正廳을 설치하여 간행한 경우는 '◎'으로 표시함.

간행의 責任者 選拔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肅宗5年本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

46) 그 기간 중에 윤8월이 있음.

라 먼저 起例宗班 2인⁴⁷⁾을 둔 것이 특징이나 이들을 책임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로 提調 4인⁴⁸⁾을 두었는데 이들을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肅宗7年本도 수정은 朗原君이 주관하였으나 提調 1인⁴⁹⁾을 두었다. 肅宗26年本의 訛誤厘正改刊本이 肅宗28年本이기에 이 두 판본 간행의 책임자는 동일하다. 提調 4인⁵⁰⁾을 두고 그 중에 2인을 校正堂上으로 삼았다. 肅宗39年本은 ‘御牒’만 수정한 肅宗 卽位 40周年 紀念本이어서 특히 延仍君(후일의 英祖)이 책임을 맡았고, 肅宗45年本과 肅宗46年本은 都提調 2인⁵¹⁾과 提調 3인⁵²⁾을 두었으며, 景宗3年本은 提調 2인⁵³⁾을 두었다.

47) 昌盛君 泌과 檜原君 倫. 昌盛君은 宣祖의 第9王子인 慶昌君의 第4子로서 朗原君과는 4촌이고, 檜原君은 宣祖의 第13王子인 寧城君의 長子로서 역시 朗原君과는 4촌이다. 즉 朗原君, 昌盛君, 檜原君이 모두 서로 4寸間으로 宣祖의 孫子들이다.

48) 右議政 吳始壽, 福昌君 楨, 判書 李元楨, 判書 金錫靑. 福昌君은 麟坪大君의 第2子, 仁祖의 손자. 혈통으로는 孝宗의 조카.

49) 行大司成 李翊相.

50) 東平君 杭, 兵曹判書 吳道一, 晉平君 澤, 林原君 杓.

東平君의 계통을 살펴보자면, 仁祖의 아들은 昭顯世子, 鳳林大君(후일의 孝宗), 麟坪大君, 龍城大君, 崇善君, 樂善君이 있었는데, 崇善君의 長子로서 仁祖의 孫子, 孝宗의 조카, 顯宗의 사촌이니, 肅宗에게는 堂叔이다.

晉平君의 계통을 살펴보자면, 宣祖의 아들은 永昌大君, 臨海君, 光海君, 義安君, 信城君, 定遠君(후일의 元宗), 順和君, 仁城君, 義昌君, 慶昌君, 興安君, 慶平君, 仁興君, 寧城君이 있었고, 慶昌君의 아들은 昌原君, 陽寧君, 平雲君, 昌城君이 있었는데, 平雲君이 信城君의 繼子가 되었다. 이 平雲君의 長子가 晉平君이다. 肅宗의 기준에서 보면 晉平君은 肅宗의 祖父인 孝宗의 6촌 아우인 셈이다.

林原君의 계통을 살펴보자면, 宣祖의 第10王子 慶昌君의 長子 昌原君의 次子인 陽寧君의 長孫으로 그 父親은 益豐君이다. 혈통 상으로는 陽寧君과 平雲君이 형제이므로 益豐君과 晉平君이 4촌이며, 林原君은 晉平君의 5촌 堂姪이다. 계보 상으로는 7촌이 된다. 肅宗의 기준에서 보면 林原君은 肅宗의 10촌 아우인 셈이다.

51) 延仍君과 延齡君.

52) 礪山君 枋, 臨昌君焜, 行戶曹判書 宋相琦.

礪山君은 宣祖의 第6왕자 順和君 曾孫으로, 그 祖父는 海安君이며, 그 父親은 瀛昌君이다. 다시말해 礪山君은 顯宗과 8촌이고, 肅宗의 9촌 叔이다.

臨昌君은 宣祖의 第5왕자 定遠君이 追尊王 元宗이고, 그의 長子가 仁祖인데, 仁祖의 長子인 昭顯世子の 第2子가 慶安君이며, 그의 長子가 臨昌君 焜이다. 즉 仁祖의 曾孫으로 肅宗과 같은 항렬인데, 6촌간이다.

53) 礪城君 楫, 吏曹判書 李台佐.

肅宗39年本만 王子인 延仍君이 최고 책임자였으며, 그 나머지는 提調⁵⁴⁾ 약간 명을 두었는데, 肅宗45年本과 肅宗46年本의 경우는 提調 3인 외에 都提調⁵⁵⁾ 2인을 두었다. 都提調가 諮問役이고 보면 대체로 提調가 責任者로 보인다.

3.4 擗單節目과 應行節目 마련

擗單節目이란 單子를 收集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대개 單子 형식을 정해 주고, 京中과 外方으로 지역을 나누어 京中은 漢城府가, 外方은 각도의 監司가 각각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京中은 各派의 門長이 서명하고 實職 1인이 보증을 서고, 外方은 各派의 門長이 서명하고 3 鄉所⁵⁶⁾가 보증하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官廳의 官印을 받고, 外方 각도의 監使, 兵使, 水使, 都事, 虞侯, 守令, 僉萬戶, 察訪, 權管 및 各官과 元居人이나 流寓人⁵⁷⁾ 등이 방방곡곡 방문하여 왕족의

礪城君은 礪山君 枋의 둘째 아우로서 瀛昌君의 제3 남이니 肅宗의 9촌 叔이다.

54) 조선시대 중앙관직의 하나로서 잡무와 기술 계통, 즉 조달, 영선, 제작, 창고, 접대, 어학, 의학, 천문, 지리,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였다.

肅宗5年本과 肅宗7年本에 관련된 『濔源譜略開刊儀軌』의 기록에 의하면, 肅宗 2년 1월에 朗原君이 당시에 宗簿寺에 제조가 귤석이라 종신으로 提調를 삼기를 요청했는데, 肅宗이 전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허락하였다. 肅宗 5년 4월 8일에 吳始壽가 건의하기를 자신이 제조가 되었지만 공무에 바빠서 宗班提調를 차출해 달라 하였고, 이에 左議政 權大運이 宗班提調 차출은 위법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로써 보면 조선시대에 종친이 출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으나, 종부시에 관련하여 특별히 종반을 제조로 삼은 듯하다.

55) 조선시대 承文院, 奉常寺, 宗簿寺, 內醫院 등의 관아에 둔 정1품 벼슬, 議政 또는 전직 議政大臣에게 주어졌는데, 인사나 행정 등의 중요한 일에 대해 자문하였음.

56) 고을 守令의 자문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鄉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政令을 민간에 전달하고 民情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데 任員으로는 鄉正 또는 座首 1명과 別監 약간 명을 두었음. 座首 이하의 鄉任을 가리킴.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판단됨.

57) 監使는 觀察使, 兵使는 兵馬節度使, 水使는 水軍節度使, 都事는 監察 糾彈 所任의 중5품 직, 虞侯는 武官으로서 兵水使의 보좌관, 僉萬戶는 僉使와 萬戶, 僉使는 각 鎮營에 속한 중3품 무관으로 僉節制使의 약칭, 萬戶는 兵馬萬戶와 水軍萬戶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각도의 여러 진에 두었던 서반 중4품의 외관직, 權官은 변경의 鎮에 둔 중9품 무관, 元居人은 본토박이, 流寓人은 객지에서 寓居하는 사람을 각각 뜻한다.

單子를 收集하게 하고, 校正廳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時限을 달리 정하여, 時限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문책한다는 내용이다.

應行節目이란 간행작업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 單子收集, 인력수급, 물자수급에 대한 지침인데, 특히 單子收集에 대한 지침을 捧單節目이라 한다. 肅宗5年本의 경우는, 그 간행장소와 主管을 校書館이 아닌 宗簿寺로 하고, 木材는 校書館, 刻手는 外方刻手를 動員하고, 實錄과 같은 수준으로 進獻, 奉安하고 玉璽를 찍어 頒賜한다는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 應行節目이라는 用語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것들이 그에 해당된다.

3.5 單子收集과 舊板本 還收

肅宗5年本과 肅宗7年本은 초창기라 명시된 應行節目이 없고 單子收集의 기록도 보이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왕족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수차례 實錄을 考出한 노력이 있었다.

肅宗26年本은 校正廳을 設廳하여 單子收集을 應行節目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아 肅宗28年本으로 改刊하였다. 校正廳을 다시 設廳하지는 않았지만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시 應行節目을 마련하고 單子를 다시 收集하였다.

肅宗39年本은 ‘御牒’만 수정 간행했으므로 單子收集 대신 ‘御牒’에 해당하는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의 현실화에 관련된 사항들만 收集하였다.

肅宗45年本은 명목만 남아있고, 그 자체를 미세하게 고쳐 肅宗46年本으로 改張修正하였다. 이 肅宗45年本은 校正廳을 設廳하고 應行節目을 마련 후 單子收集을 하였다.

景宗3年本은 前板本과의 시차가 2, 3년밖에 되지 않아 校正廳의 設廳 없이 御牒자료만 현실화하려 시작하였기에 應行節目도 單子收集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景宗 1年과 2年 사이에 辛壬黨禍가 있어 子孫錄에 杖斃死, 爲奴, 賜死, 緣坐, 竄謫, 門黜, 孥籍, 身犯, 罪謫 등의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義禁府와 刑曹의

기록을 收集한 특별한 事例가 있었다.

3.6 作業分房, 業務分掌, 施設補修와 警備

作業分房, 業務分掌, 施設補修는 작업의 규모가 다소 큰 관계로 校正廳을 設廳하였을 경우에 그 기록이 보인다. 물론 肅宗7年本과 景宗3年本도 校正廳을 設廳하였으나, 肅宗7年本은 이미 朗原君이 이미 작업한 原稿를 바탕으로 肅宗5年本이 간행되고, 이를 頒賜한 후 수령자가 수정할 곳을 표시하게 한 후 收合하여 수정간행하고, 필사본 『濔源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校正廳을 設廳한 것으로 짐작되나 이는 후고로 미룬다.

景宗3年本の 경우는 ‘御牒’만 수정하려다가 辛壬黨禍에 죄를 받은 자가 많아 ‘子孫錄’을 고치려다 보니 그 업무량이 많아 校正廳을 設廳한 특수한 경우이다. 그래서 肅宗26年本과 肅宗45年本 간행 시에만 作業分房, 業務分掌, 施設補修의 典型的인 예를 볼 수 있다.

子孫錄에는 中宗부터 기재하여 그 형제자매는 제외되고 中宗의 자손부터 수록하였는데, 肅宗26年本과 肅宗45年本の 간행 시 분방한 사정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肅宗26年本の 作業分房에 대비한 肅宗45年本の 作業分房

		肅宗26年本の 1房		肅宗26年本の 2房	
中宗					
仁宗 (無嗣)	明宗(1男)				
	宣祖(14男 11女)				
	元宗(4男)	1 大君(永昌)	12 君<2房>	1 公主<3房>	10 翁主<3房>
	仁祖(6男 1女)	2 大君<1房>	1 君(早卒)		
	孝宗(1男 7女)	3 大君<2房>	2 君<2房>		1 翁主(廢)
	顯宗(1男 3女)			6 公主<2房>	1 翁主<2房>
	肅宗(6男 2女)			3 公主<3房>	
	王世子		5 君	2 公主(早卒)	

肅宗26年本の 경우는 宣祖의 所誕과 所出 즉 正妃의 자손(大君王子君派)과 後宮의 자손(公翁主派)으로 구분하여 1房과 2房으로 분방하였고, 肅宗45年本の 경우는 <표 3> 중 사선으로 표시한 元宗의 所誕 2大君의 자손(大君派)을 1房, <표 3> 중 세로 선으로 표시한 宣祖의 所出 12君(王子君派)과 仁祖의 所誕 3大君의 자손(大君王子派) 및 효종의 所誕 6공주와 所出 1翁主의 자손(公翁主派)을 2房, <표 3> 중 가로 선으로 표시한 宣祖의 所誕 1公主와 所出 10翁主의 자손(公翁主派)과 顯宗의 所出 3公主의 자손(公主派)을 3房으로 나누어 작업하였고, 기록이 경미한 부분은 따로 분방 기록이 없다.

<표 4> 肅宗26年本과 肅宗45年本の 刊行作業 業務分掌

板本別 分房	擔當業務	責任者	校正官	書寫忠義
肅宗 26 年本	御牒修正	都廳 宗簿寺正 任舜元	咸平副正 泓, 靑陵守 模	李壽綱
	1房 宣廟朝 大君王子君派	郎廳 宗簿寺主簿 朴泰遠	礪川都正 楫, 靈原正 櫛	李漢弼
	2房 宣祖朝 公翁主派	郎廳 宗簿寺直長 俞道重	行雲興守 櫛, 儒川副正 漚	李選一
肅宗 45 年本	1房 御牒修正 元宗朝 大君派	都廳 宗簿寺正 宋成明	行錦南守 棟, 洛春正 培	李觀星
	2房 宣廟朝 王子君派 仁祖朝 大君王子派 孝宗朝 公翁主派	郎廳 宗簿寺主簿 朴昌厚	陽平都正 櫛, 行鶴城副正 楡, 夏原守 杞	金萬奎
	3房 宣祖朝 公翁主派 顯宗朝 公主派	郎廳 宗簿寺直長, 朴弼俊	達城都正 桐, 行東恩副守 搏 密陽正 椈	鄭重炯

이에 따른 業務分掌은 <표 4>와 같이 대체로 御牒은 都廳이, 각 分房은 郎廳이 각각 책임을 지고, 分房마다 2, 3명의 宗臣들이 校正에 참여하고 1명의 書寫忠義를 두었다.

校正廳을 설치할 경우 施設補修의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전에 없던 많은 인력이 집결하여 간행작업을 하였기에 업무 공간을 확충하고 부실한 곳을 수리하였다. 교정 작업 시 寫字官, 唱準, 工匠, 書吏 등이 지낼 수 있는 假家 등을 짓고, 창고의 자물쇠라든지 遮陽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고, 文書廳과 宗學廳의 공간도

활용하였으며, 坐更과 部將軍士를 불러 주야간 警備를 맡게 하였다.⁵⁸⁾

3.7 單子考校, 初草, 中草 및 校正

單子を 收集하고 校正官이 考校하고 書寫忠義가 필사를 하는데, 계속적인 교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分房別로 初草와 中草를 한다. 이렇게 2차에 걸쳐 정확한 草稿를 마련하는데 이 과정을 出草라 한다.

初草에 앞서 柎木⁵⁹⁾으로 套式板(界板)을 만들어 罫紙인 印札紙를 먼저 印出하여⁶⁰⁾ 여기에 初草와 中草를 하는데, 初草用으로는 精潔厚白紙, 楮注紙, 白紙 등을 신청한 예가 보이고, 中草用으로는 精潔厚白紙, 擣鍊厚白紙 등을 신청한 예가 산견된다.⁶¹⁾ 寫出은 書寫忠義가 행하는데⁶²⁾ 廣書案과 硯面匣具, 眞墨을 갖추고 柯時木 書填을 사용하면서 黃筆로 필사하였다.⁶³⁾ 肅宗45年本의 경우를 보면 單子考校가 진행 되는데로 出草를 병행하면서 單子 收集도 함께 이루어진 예도 보인다.⁶⁴⁾

58) 윤인현, “『濬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422-423 참조.; 윤인현, “『濬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135 참조.

59) 柎木은 甘湯나무. 감탕나무과의 상록 활엽교목. 산에 나는데 높이 10m 쯤, 잎은 革質이며 봄에 홍록색 꽃이 필. 재목은 도장, 조각, 세공재로 쓰이고, 나무껍질은 끈끈이, 반창고, 페인트 재료가 된다.

60)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濬源譜略校正廳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五月二十一日條. “右甘結急急舉行事 … 出草次 白紙陸卷 印札次 眞墨貳丁 黃筆貳柄 糊末壹升 炭貳斗 柎木半丹 馬鬣壹斤 … 當刻內進排 爲排 …”

61) 出草次 용지를 신청하면서, 初草用과 中草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용도별 사용 紙地에 대하여는 후고를 기대한다.

62) 宗簿寺編, 『肅宗 濬源系譜記略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9 右. 行2-8. “同日 校正廳 啓曰 濬源譜略草本 例以忠義寫出 …”

63)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濬源譜略校正廳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五月二十四日條. “右甘結 爲急急進排事 本廳書寫 所用柯時木 書鎮三介 廣書案三坐 硯面匣具三部 用還次進排 爲排 譜略出草次 黃筆三柄 眞墨三丁等物 當刻內進排事.”

64)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濬源譜略校正廳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六月初二日條 稟目. “今此各派單子 雖未盡到 而未收不多 而設局遷

校正은 간행 과정에서 본다면 그 順序가 初草와 中草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肅宗26年本의 경우는 심지어 御覽正書本의 進獻儀式을 치르고도 교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⁶⁵⁾ 이러한 校正은 宗簿寺 또는 校正廳에서 자체로 판단을 하지만, 御牒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임금의 허락을 얻고 교정하였다.⁶⁶⁾

3.8 御覽正書 및 御覽正書本 進上

校正을 병행하면서 初草와 中草가 끝나면 御覽用으로 다시 正書하여 進上儀式에 따라 進上하고, 付板正書를 한 후, 板刻에 들어가는 것이 順序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板刻을 하면서 御覽用을 正書하는 예도 보인다.⁶⁷⁾

御覽正書 즉 正書草本을 완성하면 紅方絲紬를 사용하여 列聖의 御諱를 가려 避諱하고 粧冊(粧纒)⁶⁸⁾ 후 進上儀式을 치르는데, 임금이 보는 것을 御覽이라 하고 이에 올리는 것을 進上이라 하며, 세자가 보는 것을 徽覽이라 하고 이에 올리는 것을 進獻이라 한다.

鼓吹와 儀仗을 준비하고 校正廳의 堂上, 郎廳, 校正官이 仁政殿에 배진하고 승지가 承傳色에게 시켜 正門으로 들어오게 하는 儀式을 치른다.⁶⁹⁾

延 亦甚有弊 …”

65)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6 左. 行4-12. “同日 … 曾在己未年間 刊頒之後 旋因致有訛誤 自前如此 … 今若出示草本 於內外子孫派 門長及可問之人 如有致誤之處 付標以送於本廳 更爲校正 鈔梓頒行 允合事 … 傳曰 依爲之.”

66)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9 左. 行1-9. “庚辰六月 日 … 但列聖御牒 載在極行 而王世子諱字 並書極行 事体未安 … 王世子諱字 稍低一行 改書之意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67)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138 참조.

68)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七月十六日條.

69)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5 左. 行9 - 張16 右2. 庚辰六月十一日條.

3.9 付板正書, 板刻, 補空, 舊板子 補充

初草, 中草, 校正, 御覽正書, 進上儀式이 끝나면 板刻하기 위하여 正書하는데, 이를 목판에 뒤집어 붙이는 것이기에 付板正書라 하고 또는 入梓正書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책자를 正書入刻本 또는 正書草本이라 한다.⁷⁰⁾ 이어서 板刻을 행하는데, 목판의 마련과 가공, 각수의 동원과 板刻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이 主要事이다.

목판은 校書館에서 自作板을 제공하였고,⁷¹⁾ 각수는 필요에 따라 成均館, 校書館, 守禦廳 등의 京中 刻手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外方 刻手들을 차출하였다.

付板에 필요한 膠末, 목판의 가공과 板刻에 필요한 물자로는 刻刀를 비롯하여 熟正燒木, 소금, 大釜, 磨正木賊, 强礪石, 大馬槽, 擔桶, 木舉乃, 空石,⁷²⁾ 具足臺床, 臺席布, 5寸丁, 3寸丁 또는 2寸丁, 山猪毛, 大足鼎, 付板眞末, 炭,⁷³⁾ 木賊(속새), 大斧, 工匠用 網石⁷⁴⁾ 校正唱准用 朱筆, 碯朱紅 및 刻手用 家猪毛 등을 마련하고, 기타 잡물로 盖具, 方文里, 陶東海, 水瓮 등이 필요했다.⁷⁵⁾ 刻手를 비롯하여 판자 鍊正에 필요한 木手, 助役, 磨板軍, 小木匠, 次知唱准, 使喚軍,⁷⁶⁾ 蹄刻匠, 等牌, 火丁⁷⁷⁾ 등의 인력을 확보하고, 교정관으로 하여금 板刻을 감독케

70) 宗簿寺編, 『肅宗 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9 右. 行2-8. 同日(庚辰六月十九日)條.

71)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張37 右. (己亥)七月十三日, 七月二十一日, 八月一日條.

72) 宗簿寺編, 『肅宗 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34 右. 行5-左. 行1. 庚辰五月 日條.

73) 宗簿寺編, 『肅宗 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60 右. 行2-8. 庚辰五月 日條.

74)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六月二十三日條.

75)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六月二十三日條 粟目.

76) 宗簿寺編, 『肅宗 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47 左. 行7-右. 行9. 庚辰六月初三日條.

하고 訛誤를 校讎하게 하였으며,⁷⁸⁾ 食鼎 炊飯木⁷⁹⁾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아 取食하면서 板刻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舊板의 관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肅宗7年本을 간행할 적에 肅宗5年本 즉 始刊本의 최종의 金錫胄 발문 3張 중 2張에 해당하는 舊板木을 그대로 사용했고, 肅宗26年本은 모두 新板이며 肅宗28年本은 肅宗26年本 목판 총 190張 중에 68張分을 그대로 사용하고 74張分을 補空하였으며 48張分이 新板이다. 肅宗39年本은 총 198張 중 3張分은 肅宗7年本 구판을 사용하였고, 184張分은 肅宗28年本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新板은 5張分, 舊板의 내용과 신판의 내용이 합쳐진 改板이 4張分, 補空한 것이 1張分, 舊板과 내용이 동일한 再刻板이 1張分이다. 肅宗45年本을 간행할 적에 肅宗28年本의 舊板木 50張分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했고,⁸⁰⁾ 肅宗46年本은 극히 일부를 改張修正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新板, 改版, 補空, 再刻板 등의 사례가 모두 나타난다.

3.10 印出, 前板本 解冊, 改粧, 細補, 粧績

印出을 할 때는 먼저 半眞墨으로 한번 印出하여 점검하는 것을 初見이라 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가하여 다시 印出하여 점검하는 것을 再見이라 한다. 이에 또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본격적인 印出을 한다. 印出에는 종이, 墨, 黃蜜이 필요하다.

대개 종이는 進上進獻用과 奉安用에 草注紙⁸¹⁾를 사용하였고, 頒賜用에는 楮

77)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61 右. 行12 - 左. 行5. 庚辰六月 日條.

78)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7 右. 行1-8.

79)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六月二十三日條.

80)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七月十六日條.

注紙⁸²⁾를 사용하였는데, 景宗3年本은 재정적인 이유로 頒賜用을 厚白紙를 印出하였다.⁸³⁾ 墨은 그 농도에 따라 半眞墨과 眞墨이 있고, 칠하는 횟수에 따라 單墨과 單再墨이 있으며, 黃蜜은 문지르는 횟수에 따라 單蜜과 單再蜜이 있다. 進上進獻用과 奉安用은 眞墨으로 單再墨을 하여 單再蜜을 하였고, 頒賜用은 半眞墨으로 單墨을 하여 單蜜을 하였다.⁸⁴⁾

前板本을 解冊하여 改粧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肅宗26年本을 肅宗28年本으로 修正改刊하면서 全190張 중 74張을 補空하고, 48張을 改板할 적에 肅宗26年本을 解冊하여 肅宗28年本으로 改粧하였고, 肅宗39年本을 간행하면서 肅宗28年本을 회수하여 그것의 全190張 중 184張을 그대로 사용하고, 肅宗7年本의 발문 3張과 新板 5張과 改板 4張, 補空 1張, 再刻板 1張을 印出하여 合本할 적에 肅宗28年本을 解冊하여 肅宗39年本으로 改粧하였으며, 肅宗45年本을 완성한 후 약간의 誤謬處와 延齡君 관련 사항을 미세하게 수정한 경우에 肅宗45年本을 解冊해서 肅宗46年本으로 改粧하였다.

景宗3年本은 景宗 2년(1722) 6월 16일 宗簿寺 建議로 간행을 제안한 것이다. 肅宗46年本이 완성되어 최종 進上한 기록이 肅宗 46年(1720) 3월 26일이었기에 그 시차는 2년 3개월이 채 못 된다. 子孫錄의 변화는 거의 없고 다만 景宗이 등극함으로써 변화된 사항을 기록할 요량이었기에 御牒만 수정하고자 하여 進上進獻件은 새로 印出하고, 頒賜件은 肅宗46年本을 회수하여 御牒만 改張하려 하였다. 하지만 景宗 1, 2년에 걸친 辛壬黨禍의 여파로 子孫錄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뒤늦

81) 중앙의 각 官衙에서 어떤 사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임금께 상주하는 문서를 草記라 하는데 이를 기록하는 종이를 草注紙라 한다.

82) 조선시대에 史草 쓰는 일을 맡은 자가 승정원의 정7품 벼슬 注書이다. 승정원의 承旨나 注書가 국왕의 명령을 筆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이를 注紙라 하며, 탁나무 껍질로 만든 注紙를 楮注紙라 한다. 참고로, 조선 초기에는 이 楮注紙를 화폐로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길이 1척 6촌에 너비 1척 4촌이고, 20張을 1卷으로 하며, 태종 2년(1402) 발행 당시에 책정나 가치는 楮注紙 1장이 五升布 1匹 또는 쌀 2斗에 해당하였다.

83)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7 <M35-542~543> 張15. 癸卯九月一日條.

84)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35 右. 行12-張36 右. 行10. 庚辰六月 日條.

게 校正廳을 設廳했고, 회수한 肅宗46年本은 洗草해서 戶曹로 보내고,⁸⁵⁾ 進上進獻本, 奉安本, 頒賜本을 모두 새로 印出 粧縵하였다. 景宗 3年 10월 26일에 頒賜 대상의 명단을 확정하고 頒賜를 시작하였는데, 다시 오류가 지적되어 頒賜本을 환수하여 細補⁸⁶⁾하였다.

粧縵은 御覽正書本을 만들 때에도 소규모로 필요한 작업이지만 進上進獻本, 奉安本, 頒賜本을 완성할 때에 본격적인 작업을 행한다. 대개 進上進獻本의 일부와 奉安本은 段衣⁸⁷⁾로 粧縵하고, 頒賜本은 紙衣로 粧縵을 하는데 각 판본별 간행 형태와 규모 및 粧縵의 사정은 <표 5>와 같다.

<표 5> 板本別 刊行 形態와 規模 및 粧縵

板本		始刊本	숙7	숙26	숙28	숙39	숙45, 46	경3		
卷册數 (권/책)		상하/1	상하/1	3/2	3/2	3/2	5/4	5/4		
張數 (단위: 張)		100	114	190	190	198	336	340		
刊 行 件 數	進上進獻 (단위: 권)	進上	未詳	10	段衣	10	10		5	5
		紙衣			20	20		10	10	
	進獻	段衣	無	無	5	5		3	3	
		紙衣			15	15		7	7	
	奉安 (단위: 권) <段衣>		未詳	未詳	5	5			5	
	頒賜 (단위: 권) <紙衣>		未詳	242	242	242		200	200	
小計 (단위: 권)		未詳	252	297	297		225	230		
刊行 册數 (단위: 책)		未詳	252	594	594		900	920		

* 판본의 始刊本은 肅宗5年本이며, 이하 숙7, 경3 등은 肅宗7年本, 景宗3年本 등을 뜻한다.

85) 景宗 癸卯年 「璿源系譜紀略儀軌」 장10-11. 계묘 10월 20일.

86) 細補란 용어는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의 「漢韓大辭典」, 「韓國漢字語辭典」, 世宗大王 記念事業會의 「한국고전용어사전」, 法制處의 「古法典用語集」, 民衆書林의 「漢韓大字典」, 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 諸洪圭의 「韓國書誌學辭典」, 川瀨一馬의 「日本書誌學用語辭典」 등의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景宗 癸卯年 璿源系譜紀略儀軌」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 ‘細補’란 틀린 곳을 오려내고 수정한 내용을 冊紙의 뒷면 쪽에서 붙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87) ‘緞衣’인데 기록에는 ‘緞衣’라고 쓴 곳도 있지만 주로 ‘段衣’를 사용하고 있다.

始刊本은 그 粧縵에 관한 기록이 없고, 肅宗7年本은 進上本 10건의 기록만 보이고 段衣와 紙衣의 구분 수량을 알 수가 없다.

肅宗26年本은 進上本 30건과 進獻本 20건 중 각각 $\frac{1}{3}$, $\frac{1}{4}$ 은 段衣, $\frac{2}{3}$, $\frac{3}{4}$ 은 紙衣로 粧縵하였고, 奉安本에 대한 粧縵 기록은 없으나 紙地, 眞墨, 黃蜜의 사용법을 보아⁸⁸⁾ 段衣로 粧縵했음이 분명하다. 이 관본에 대한 奉安 관련 기록에 宗簿寺, 江華, 赤裳, 太白, 五臺 등 5처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⁸⁹⁾으로 보아 奉安本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段衣 20건, 紙衣 267건을 粧縵하였다. 하지만 이 관본은 奉安되지 않았고, 肅宗28年本이 奉安되었을 것이다.

肅宗28年本은 이미 進上進獻되고 頒賜된 肅宗26年本을 환수하여 訛誤厘正改刊하였기에 그 粧縵은 粧冊에 불과했다. 肅宗39年本은 肅宗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御牒만 수정하였기에 肅宗28年本을 환수하여 약간을 改張하였으므로 이 역시 그 粧縵은 粧冊에 그쳤고 그 간행 건수에 대한 내역은 기록이 없다.

肅宗45年本과 肅宗46年本은 간행과정에서 奉安本 印出 기록이 보이지 않고 肅宗46年本이 進上된 3월 26일 이후 奉安에 대한 기록이 承政院日記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段衣 8건, 紙衣 217건을 粧縵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景宗3年本은 段衣 13건, 紙衣 17건을 粧縵하였다.

3.11 完成本 進上 進獻, 進箋

印出과 粧縵을 마치면 吉日을 택하여 관본의 완성을 기념하고 임금에게 아뢰는 進上 儀式이 거행된다. 세자나 세제가 책봉되어 있을 때에는 進獻 儀式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장소는 仁政殿이나 崇政殿을 택하여 校正廳 堂上, 郎廳,

88)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2집(2001. 12), 429-430 참조.

89)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9 右. 行9-12. (庚辰六月十九日). “宗簿寺 啓曰 … 本寺璿源閣所藏 江華赤裳太白五臺等處所藏件 亦令校正廳 印出以爲依例 奉安之志 何如 傳曰 允.”

校正官이 儀仗을 갖추고 鼓吹를 마련하여 거행한다.⁹⁰⁾ 大殿進上은 承旨가 承傳色⁹¹⁾을 통해 받아들이고, 世子宮進獻은 侍講院⁹²⁾ 官員이 承言色⁹³⁾을 통해 받아들인다. 이것이 進上進獻 儀式이다. 이때 進箋 儀式도 함께 치르는데, 進箋이란 나라에 길한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써 바치던 四六體의 箋文⁹⁴⁾을 올리는 것이다.

3.12 洗草, 撤局, 褒賞, 追加印出

進上和 進箋의 儀式이 끝나면 校正廳 堂上 이하의 諸官이 彰義門 밖의 遮日岩에 가서 初草와 中草에 사용되었던 종이를 洗草한다. 특히 景宗3年本 완성 때에는 舊板의 木板을 燒却하는 사례가 있었고, 辛壬黨禍의 治罪로 인하여 신분 에 대한 변화가 있는 자들의 과거 신분기록을 閭間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취지로 前板本인 肅宗46年本을 회수하여 洗草하기도 하였다.⁹⁵⁾ 洗草가 마침으로써 임시기구인 校正廳의 임무를 마무리하는데 이를 撤局이라 한다.

撤局 이후에 王과 世子 또는 世弟가 각각 校正廳 各級 行政職과 書寫忠義에 대하여 差等하여 褒賞하고 員役과 工匠에 대하여는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여 褒賞하였다.

褒賞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頒賜用이 부족하여 追加印出한 例도 보인다.⁹⁶⁾

90)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7 <M35-542~543>) 張6. 癸卯 八月二十四日條.

91) 조선시대 임금이나 왕비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내시부의 한 벼슬. 王命을 出納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은 承政院에서 맡았으나 잡무 및 사소한 일은 이들이 담당하였으며, 왕비전의 경우는 承傳色이 모두 담당하였다. 大殿 承傳色은 정4품, 王妃殿 承傳色은 종4품이다.

92)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 世子侍講院.

93) 세자의 말을 전하는 內侍를 일컫는다.

94) 길한 일뿐만 아니라 흉한 일이 있을 적에도 箋文을 올린다.

95)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7 <M35-542~543>) 張7. 癸卯九月 日條.

96)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己亥九月十一日條.

3.13 頒賜, 改張進上, 奉安

朝臣과 宗臣에 대하여 頒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頒賜를 하되, 始刊本의 경우를 보면 頒賜本에 옥새를 찍고, 원칙적으로는 頒賜 대상자가 政院에 와서 직접 수령하게 하였다.⁹⁷⁾

頒賜 이후에도 誤謬가 지적되어 進上進獻本, 頒賜本, 奉安本을 환수하여 進上進獻本과 奉安本은 改張進上하고 頒賜本은 細補한 事例도 보인다.⁹⁸⁾

始刊本의 경우, 宗簿寺의 提調가 江都和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의 璿源錄 保管處에 奉安을 건의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奉安되기 전에 肅宗7年本으로 수정 간행되었고, 肅宗7年本이 奉安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肅宗26年本도 완성 후 宗簿寺의 璿源閣, 江華, 赤裳, 太白, 五臺에 奉安하려 하였지만⁹⁹⁾ 이 또한 바로 肅宗28年本으로 수정 간행했기 때문에 奉安되지 않았다. 肅宗28年本도 奉安件은 印出했지만 奉安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肅宗39年本과 肅宗45, 46年本은 의례 상에는 따로 奉安件을 印出한 기록도 없고, 景宗3年本은 奉安件 印出 기록은 있으나 奉安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始刊本, 肅宗26年本, 肅宗45年本 등 3종은 오류가 있어서 수정되었기에 奉安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肅宗7年本, 肅宗28年本, 肅宗39年本, 肅宗46年, 景宗3年本 등 5종 판본은 당연히 奉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始刊本 간행과정에서부터 實錄과 같은 수준으로 奉安하려 했고, 肅宗45年本 간행 과정에서는 宗簿寺와 외 4처에 奉安할 것을 건의한

97)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2-3837<M35-542>) 張九. (己未)十一月初二日條.

98)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7 <M35-542~543>) 張78. 甲辰正月二十日條.

99)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張19 右. 行9-12. (庚辰六月十九日). “宗簿寺 啓曰 … 本寺璿源閣所藏 江華赤裳太白五臺等處所藏件 亦令校正廳 印出以爲依例 奉安之志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 肅宗 26년 6월 19일 (경진) 康熙 39년. “洪重疇以宗親府(缺)意啓曰 璿源譜略及續冊 旣已合譜纂修 今(缺)璿源閣所藏及江華赤裳太白五臺等處所藏(缺)出 以爲依例奉安之地 如何 傳曰允.”

기록¹⁰⁰)도 보이며, 「璿源系譜紀略」을 간행하면서 항상 이를 莫重之事라 일컫거나 事體가 重大하다 한 것으로 보아 귀중히 여기고 존숭하였으니 奉安 대상이 아닐 수 없고, 특히 肅宗39年本의 경우는 그 해 禧年이 들어 式年인 翌年에 奉安하자는 建議¹⁰¹)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式年마다 璿源錄을 奉安했기 때문에 그대에 같이 奉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承政院日記를 보면 式年마다 璿源錄을 奉安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4. 結 言

이상에서 肅宗朝와 景宗朝에 간행된 「璿源系譜紀略」의 간행 추이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간행된 각 관본의 刊布奉安의 順序를 살펴본 결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및 작업은 <표 6>과 같다.

<표 6> 肅宗, 景宗朝 「璿源系譜紀略」刊布 奉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업무 및 작업

1. 建議와 許諾	2. 校正廳 設廳	3. 責任者 選拔	4. 捧單節目 마련
5. 應行節目 마련	6. 單子收集	7. 舊板本 還收	8. 作業分房
9. 業務分掌	10. 施設補修와 警備	11. 單子考校	12. 初草
13. 中草 및 校正	14. 御覽正書	15. 御覽正書本 粧纘	16. 御覽正書本 進上
17. 付板正書	18. 板刻	19. 補空	20. 舊板子 補充
21. 印出	22. 前板本 解冊	23. 改張	24. 細補
25. 粧纘	26. 完成本 進上進獻	27. 進箋	28. 洗草
29. 撤局	30. 褒賞	31. 追加印出	32. 頒賜
33. 改張進上	34. 奉安		

100)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 <M35-542>) 戊戌九月二十四日條.

101)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 肅宗 39년 8월 23일, “行禮曹判書閔鎮遠所啓 … 竊聞璿源譜略改修正之故 宗簿寺官員 今將奉往於太白山等處云 此是莫重不可已之事 以當此年事大歎之時 弊端亦不可不慮 且明年卽式年也 當有璿源錄奉安之舉 其間不過一年 若一時舉行 則似無所妨 下詢於入侍大臣 如何 … 上曰 依爲之.”

위 <표 6>에서 '3. 捧單節目 마련'은 '4. 應行節目 마련'의 하위 업무로 '應行節目 마련'에 포함되고, 나머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6. 舊板本 還收', '18. 補空', '19. 舊板子 補充', '21. 前板本 解冊', '22. 改張', '23. 細補', '30. 追加印出', '32. 改張進上' 등을 제외하면 <표 7>과 같은 定型的인 刊布奉安의 順序를 도출할 수 있다.

<표 7> 肅宗, 景宗朝 「璿源系譜紀略」을 통해 본 定型的 刊布 奉安의 順序

1. 建議와 許諾	2. 校正廳 設廳	3. 責任者 選拔	4. 應行節目 마련
5. 單子收集	6. 作業分房	7. 業務分掌	8. 施設補修와 警備
9. 單子考校	10. 初草	11. 中草 및 校正	12. 御覽正書
13. 御覽正書本 粧縵	14. 御覽正書本 進上	15. 付板正書	16. 板刻
17. 印出	18. 粧縵	19. 完成本 進上進獻	20. 進箋
21. 洗草	22. 撤局	23. 褒賞	24. 頒賜
25. 奉安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7. 1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22輯(2001. 12).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景宗3年本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39年本考.” 「書誌學研究」 第33輯(2006. 6).

宗簿寺編. 「璿源譜略開刊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37<M35-542>.

「璿源系譜紀略」刊布奉安의 順序 定型考

宗簿寺編.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7<M35-542~543>.

宗簿寺編. 「肅宗 己亥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1<M35-542>.

宗簿寺編. 「肅宗 璿源系譜記略儀軌」.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藏2-3840<M35-542>.

